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 새로운 시대를 열다

- 5월 12일, 도쿄 일본 정부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일본 스타트업담당상 면담

- 한·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정책 공유, 미래세대 인재교류와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네트워킹) 등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12일 일본 도쿄 정부청사에서 고토 시게유키 일본 스타트업담당상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기시다 내각은 2022년을 창업기업(스타트업) 창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5월 8일 방한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면담을 통해 한·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가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토 시게유키 스타트업담당상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大臣) 중 경제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경제재생담당상, 신자본주의담당상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임장관('08~'13)과 유사한 직위이다. 7선 중의원이며, 후생노동대신 이력이 있는 고토 시게유키 스타트업담당상은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 개혁에 열정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담당상은 양국의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을 공유하는 동시에 인재교류와 교류(네트워킹) 등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양자면담을 계기로 한·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며, "향후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신연재 (044-204-75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스타트업담당상 참고자료**

□ 개요

○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비전의 핵심 요소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료직(장관급)**을 설치

□ 신설현황

○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스타트업담당상**을 **신설**('22.8월)하고, **경제재생담당상***(現, 고토우 시게유키)이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

내각부특명담당대신(총 9명) 중 **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재생' 등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임장관**('08~'13년)**과 유사**한 지위

< **고토우 시게유키** 스타트업담당상 프로필 >

생년월일	1955. 12. 9 (도쿄 출생)	
주요경력	■ 現 스타트업담당상, 경제재생 및 신자본주의담당상 등('22.10~) ■ 도쿄대 법학과 졸업 및 대장성 (現 재무성) 입사 ■ 후생노동대신 ('21.10~'22.8) ■ 나가노현 제4구 7선 중의원	

○ 특임장관 기능과 유사하게,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창업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참고 2 일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 (개요) 2022년 11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제2의 창업열풍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

□ 핵심 추진사항

1. 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인재·네트워크 구축		
	멘토에 의한 지원사업 확대	‣ 미답사업 대상을 타 법인, 고등전문학교·대학생으로 확장(연간 70명에서 5년 후 500명으로) * 미답사업 : 인재 발굴 프로젝트
	해외 창업가 육성거점 창설	‣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원하는 인재 20명 파견
	창업가 교육 강화	‣ 미국 대학의 일본 대상 창업가 육성 MBA 검토
	1대학 1출구 캠페인	‣ 1개 연구대학당 50개 기업 창업하고, 1개 기업은 출구전략을 목표로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	‣ 딥테크 분야 국제공동연구와 인큐베이션 기능 겸비한 캠퍼스 창설
2.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벤처캐피털 출자기능 강화	‣ 투자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200억엔의 출자기능 강화 추진
	산업혁신투자기구 출자기능 강화	‣ 기존 규모의 2배 정도 투자 펀드 설치 ‣ 투자펀드의 운용기한 확대(34년에서 50년으로)
	민관펀드 등 출자기능 강화	‣ 공적자금을 통해 국내외 벤처캐피털 유한책임 투자 강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R&D형 스타트업 지원 강화	‣ 대상 확대(보조상한선 확대, 지원 메뉴 확대, 해외 벤처캐피털 포함)로 5년간 1000억엔 기금조성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신약 개발벤처 지원 강화	‣ 지원대상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약 개발분야로 확대(10년간 3000억 엔의 기금 적립)
3.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세제조치 등 기본 방향 검토	‣ 기존 발행주식 취득에 대한 세제조치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공모증자규정 개정	‣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모증자 자금 충당기한 철폐
	사업 재구축을 위한 사적 청산 관련법 정비	‣ 채권자의 다수결 결의와 법원 인가를 통해 사적 청산이 가능하도록 법안 제출
	「노동이동 원활화 지침」 마련	‣ 사업간·산업간 실업 없는 노동이동 원활화, 리스킬링, 구조적 임금인상 등 포함
	조직개편의 가속화	‣ 스핀오프를 하는 기업에 지분 일부 남기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검토